

여수시 “4천억 투입 저출생·인구 유출 위기 극복”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다자녀 지원 등 보육 인프라 ‘확충’
청년 자립·노년 전 단계 밀착 지원
市 “살기 좋은 행복 도시 조성 총력”

여수시가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 심화하는 인구 감소 위기에 맞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 자립부터 결혼과 출산, 양육을 거쳐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단계를 아우르는 총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살고 싶은 행복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인구 정책 분야에 국비 2천739억원, 도비 488억원, 시비 1천167억원 등 총 4천39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우선 청년의 지역 정착과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마련에 117억원을 배정했다.

주요 사업으로 청년근로 근속장려금과 맞춤형



여수시가 저출생·인구 유출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 정책을 가동한다. 사진은 최근 청내 회의실에서 열린 인구정책위원회 정기회의 모습. <여수시 제공>

형 인턴 사업, 취업자 주거비·월세 보조, 여수형 임대주택 지원,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창업·소상공인 컨설팅 등을 폭넓게 추진해 고용 안정과 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에는 34억원을 투입하며,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을 비롯해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출발을 돕는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임신·출산 분야에 188억원을 들여 난임 기초검진비와 사술비, 한방 치

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임신축하금 등을 지원하며, 특히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보육 인프라 확충과 다자녀 가정 지원 등 보육·양육 분야에는 가장 큰 비중인 1천24억원이 쓰인다. 긴급 주말 돌봄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

터 운영, 아동 및 가정양육 수당 지원에 나서고, 다자녀 가정에는 봉황산 자연휴양림과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상수도요 요금 감면 등 제각형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중장년·노년층 지원에는 1천87억원이 투입돼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고혈압·당뇨병 의료비 지원 등 건강과 복지를 챙긴다.

신중년을 위한 잡매칭과 희망일자리 장려금 사업도 병행해 활기찬 고령 친화 기반을 다진다.

이 밖에도 434억원을 들여 전 시민 대상 시민 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 여객선 운임 지원 등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월 20회 시내버스 무료 탑승 혜택도 제공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세한 혜택은 시청 누리집이나 읍면동에 비치된 ‘2026년 여수시민이 되면 받는 특별한 혜택’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고흥읍-나로우주센터 20분 시대 열린다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 본격
실시설계 용역 착수...2028년 착공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며 교통망 확충을 본격화 한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고흥읍 호령리에서 봉래면 예내리 나로우주센터까지 약 32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공사로, 총사업비 6

천521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구간은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로, 군은 당초 제6차 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될 예정이던 사업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5차 계획 변경 고시에 반영시키며 추진 시기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올해 국비 80억원을 확보해 설계 용역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는 교량 2개소와 터널 4개소를 포함해 총 2개 공구(13.86km·18.36km)로 나뉘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해당 구간 확장이 완료되면 고흥읍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6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근에 조성 중인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물류 운송 체계 개선은 물론, 민간 기업 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사업 시기를 앞당긴 만큼, 이번 확장이 고흥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인프라가 되도록 조속한 착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구례군 로컬 플라마켓 ‘콩장’ 7년 만에 부활

오는 21일 첫 개장...50여개팀 참여

구례군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로컬 플라마켓 ‘콩장’을 7년 만에 재개장해 지역 상권 활력 제고에 나선다.

11일 구례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장 행사는 오는 21일과 28일, 내달 11일 등 총 3회에 걸쳐 서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하반기 장터 일정은 9월 이후 별도 편성돼 운영될 예정이며, 이번 장터에는 50여개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로컬 상품을 선보인다.

군은 방문객들이 봄나들이를 만끽할 수 있도록 잔디광장에 간이 텐트와 돛자리 등을 제공하고, 구례매천도서관과 연계한 야외 도서관도 함께 운영해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된 콩장은

구례를 대표하는 소통형 장터로 판매자와 방문객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며 다양한 로컬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군은 최근 집중 육성 중인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를 부활시켰다.

구례군 관계자는 “그동안 콩장을 그리워하던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행사를 다시 열게 됐다”며 “자연 속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어우러지는 즐거운 소통의 공간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기자



화순군 ‘제8회 난 명품 박람회’

우수 작품 시상식·경매 등 진행

화순군이 한국춘란의 뛰어난 가치를 알리고 지역 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명품 박람회를 추진한다.

11일 화순군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화순 하니문문화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8회 화순 난 명품 박람회’가 열린다.

올해 박람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출품된 1천여 점 이상의 한국춘란과 다양한 품종의 희귀 난이 전시돼 애호가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21일 오후 1시30분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공식 개막식이 치러진다.

개막식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화예품을 대상으로 대상과 최우수상 등 우수 작품 시상식이 진행되며, 화순난연합회 주관으로 희귀 춘란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특별 경매 장터도 열린다.

군은 이번 박람회 개최와 더불어 지역 난 산업 발전을 위해 전용 재배 교육장과 온실을 조성해 농가에 임대하고 있으며, 우량 종묘 보급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한국춘란의 고고한 매력을 널리 알리고 난 문화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람객이 화순을 찾아 난의 진가를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기자

청암대, 그린바이오산업과 등록률 125% 달성

정원 20명 중 25명 등록 쾌거

농생명 자원 실무형 인재 양성

순천 청암대학교는 11일 “신설 학과인 그린바이오산업과가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을 초과 달성하며 지역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발을 내디딘 해당 학과는 정원 20명에 정원 외 5명을 포함해 총 25명이 최종 등록하며 등록률 125%를 기록했다.

대학측은 높은 등록률을 기록한 요인으로 농식품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정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기조와 전남도·순천시의 농생명 전략 산업 육성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대학은 지역 농생명 자원의 산업화와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내걸었으며, 최근 그린바이오산업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세부 학사운영 계획과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사진> 기업 연계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모델(BM) 개발, 현장 실습 확대를 통해 실무 역량을 극대화하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펩푸드 등 핵심 분야의 산학 협력 플랫폼을 굳건히 구축할 계획이다.

김성홍 총장직무대행은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생명 자원을 기반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분야”라며 “대학의 교육 역량과 지역 산업을 긴밀히 연계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기자

장성군, 유휴 임대농기계 30대 공개 매각

24일 동력파종기 등 17종 현장 입찰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사용하지 않는 노후 농기계를 지역 농업인들에게 공개 매각하며 농가 부담 덜기에 나섰다.

11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24일 동력파종기 등 유휴 임대농기계 17종 30대를 대상으로 현장 경쟁 입찰을 실시한다. <사진>

매각 공고 기간인 입찰 당일까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를 방문하면 매각 대상 기계를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인 지난 5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제한된다.

입찰 참여자는 당일 현장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낙찰자는 품목별 감점평가액 이상 금액 중 최고가를 적어낸 사람으로 결정되며, 계약 후 매각 대금을 전액 납부해야 기계 인수가 가능



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유휴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하는 동시에 농가에는 저렴하게 기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다만 노후 및 고장 사유로 매각되는 만큼, 사전에 정비 필요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성=김문태기자



장흥 ‘빠빠용Zip’ 서로살림터 운영 활동가 모집

개인·팀 누구나 23일까지 접수

장흥군이 옛 장흥교도소를 문화재생 북함공간으로 탈바꿈한 ‘빠빠용Zip(사진)’ 내 공유 공간 활성화를 위해 ‘서로살림터’ 운영 활동가 모집에 나선다.

11일 장흥군에 따르면 서로살림터는 과거 교감의 상징이었던 교도소를 생활 기술 공유와 공동체 회복의 장소로 재생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수리, 업사이클링 등 생활 기술과 문화예술, 자급자족 요리 등 지역 사회와 나눔 콘텐츠를 보유한 개인이나 팀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23일까지다. 군은 서류

심사를 통해 1차로 8개 팀을 선발, 내달 7일부터 한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최종 5개 팀을 확정해 오는 12월까지 정식 프로그램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활동가에게는 매월 10회 이상 정 금액의 활동 지원금과 무상 공간 이용 혜택이 제공되며, 관련 사업 설명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빠빠용Zip 내 ‘영화로운 책방’에서 열린다.

장흥군 관계자는 “K-콘텐츠 촬영 명소로 떠오른 빠빠용Zip이 주민들의 경험을 나누는 생활 실험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주민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렬기자